

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● 새로운 論語 번역본 나온다-金鍾武翁, 「論語新解」 곧 출간 / 현재 일상용어로 쉽고 정확하게 풀이 / 朱子 · 재임스 레그의 誤譯 40개나 바로잡아(세계일보 7월 4일 趙佑石 기자)

● “중국의 앞날은...”-여러시각 관련서적 주목 / 自國 부패된 현실 속성 날카롭게 비판 / ‘환상의 11억’ 시장 성급한 교류에 경종(매일경제신문 7월 6일 李奉滿 기자)

● 출판가 “전문화시대 활짝 열렸다” / 철학, 미술 등 이어 사진, 추리물까지 다양 / 독자들 큰 신뢰 얻어...갈수록 세분화될 듯(스포츠투데이 7월 6일 오정국기자)

● 문예지 창 · 복간 붐물...독자 확보 치열-「작가세계」 등 2년새 6종...연말께 2종 또 나와 / 개성있는 편집으로 새 계간지 자리잡아(한겨레신문 7월 6일 조선희기자)

● 출판사 심벌마크 만들기 유행-나무 · 별 등...다양한 이미지 전달 / 작년 계몽사 이어 50여개社 제정 / “문화교육 이바지”...외국선 보편화(서울경제신문 7월 7일 姜升遠 기자)

● “대중철학서 많이 읽힌다” / 「철학에세이」, 「노자철학 이것이다」 등 40종 불티 / 전환기 ‘삶의 지혜’ 얻으려는 반중 / 베스트셀러 상위권 랭크...일부서점점 특별코너도(서울신문 7월 7일 李憲淑 기자)

● 뿌리내리는 외국어잡지-정치 · 경제 · 관광분야 등 다양 / 有價誌만 32종...83만여부 발행 / 독자층 한정, 광고시장 협소로 어려움(중앙경제신문 7월 7일 金龍善 기자)

● 출판사들 심벌마크 사용 늘어 / 책모양 변형도안이 많아(중앙경제신문 7월 7일)

● 사무직 여성 노동백서 첫 출간-여성민우회 「사무직 여성의 현실과 운동」 / 생활 · 노동실태 · 의식 종합 진단(중앙경제신문 7월 9일)

● 연극전문지 「서울벽보」 3개월만에 중간위기 / 유일한 민간지...‘평점제’ 등 첫 시도 / 구독신청 50여부...

재정난 못견디(세계일보 7월 9일)

● “일제하 20·30년대 학생들이 잠지냈다”-「長恨」·「女聲」...삶의 애환 담은 교양지(일간스포츠 7월 9일 金炳勳 기자)

● 「빛깔있는 책들」 시리즈 출간-대원사, 10년간 5백권 발행 목표 세워 / 1차 전통 · 현대 생활문화 다룬 36권 첫 선 / 학자 · 사진작가 등 동원 컬러판 ‘시각출판’으로(국민일보 7월 10일 朴太堅 기자)

● 영문소설 「하얀매지」로美文단 선봉일으킨 安正孝씨-「派越 후유증 동병상련 덕분이죠」 / 귀향 참전병사 사회부적응 다뤄 / 「NYT 등 유력지 대서특필에 열떨떨」(경향신문 7월 10일 安健赫 기자)

● 문고본 컬러화시대 개막-대원사 · 서문당 등 총서의 대중화 겨냥 잇따라 출간 / 설명 줄이고 원색사진 ‘여백의美’ 부각 / 독서습관 변화에 발맞춰 ‘보는 책’으로(중앙일보 7월 10일 李憲益 기자)

● “출판도시는 시대적 요청”-출판문화단지 건설 李起雄 발기준비위원장 / 전근대적 산업환경 개선 위한 自救 일환(경향신문 7월 11일 安健赫 기자)

● ‘출판도시’ 건설 추진...정말 절실한가-물량만 세계 10위...출판사 거의 ‘구멍가게’ / “투자할 땅을 달라” 업계 입모아 / 4천5백여개 중 제대로 책 내는 건 1천여곳 / 인쇄 · 제본 · 판매 등 관련업종마다 도심에 밀집(조선일보 7월 11일 崔球植 기자)

● ‘잃어버린 역사’ 찾기 15년 구한말 사진 5천점 모아-「사진으로 본 한국의 백년」 펴낸 鄭成吉씨 / 개항기 · 일제하 희귀史料 650점 수록(조선일보 7월 11일 崔球植 기자)

● 민속 · 취미 등 교양정보를 문고로 출간-대원사 「빛깔있는 책들」 내놔 / 절반이상 원색화보... 그림 함께 / 1차분 36권 내고 10년내 5백권 목표(한국일보 7월 11일)

● 외국기업가 評傳物 셀러리맨 눈길쫓려-20여종...아이아코카 · 마쓰시타 자서전 잇달아 번역 / 사업스타일 · 생활방식 기술...희망 · 간접 체험선사(내외경제신문 7월 12일 南眞祐 기자)

● 1천8백首 「한국漢詩」 출간 / 金達鎭 노년 번역 유작...대표작만 골라 / 사대부에서 기생 작품까지...서정성 풍부(한국경제신문 7월 12일 李汀桓 기자)

● 金達鎭 유작 「한국漢詩」 출간

-893명의 대표시 수록 / 사대부 · 기생 등 작가 다양 / 死藏된 명시 발굴 집대성(중앙경제신문 7월 12일)

● 우리 영토 축소과정 고증-정부 기록보존소 梁泰鎭씨 「한국邊境史 연구」 출간 / 버려진 땅 연구 20년...알찬 결실 / 백두산정계비서 日의 독도 영유권 허구성까지 밝혀(조선일보 7월 12일 金泰翼 기자)

● 바둑책 기초~프로名局集까지 다양 / 여성·어린이가 많아져 흑백 열기 실감 / 시리즈출간 특징 간편한 포켓용도 인기 / 서점에 별도 코너 애호가 발길 줄이어(매일경제신문 7월 12일 李奉滿 기자)

● 추리소설 출간 붐 / 출판사들 휴가철 수요 겨냥 18종 발간 서둘러 / 목사 · 교수 · 仙道연구가 · 법무관 등 작가도 다양(스포츠투데이 7월 12일 박찬기자)

● 1천8백首 번역...「한국漢詩」 출간-故金達鎭翁 편찬...민음사에서 전3권으로 / 서정시 중심, 註 간략히 달아 소개 / 승려 · 기생 등 작가의 신분도 다양(한국일보 7월 13일 金薰 기자)

● 술제치킨 독서계에 ‘새조명탄’ / 러시아혁명 다룬 英譯 「1914년 8월」 출간 / 스톨리핀 “우상화다”, “아니다” 역사논쟁 불러(국민일보 7월 13일 金相溫 기자)

● 무명 여류작가 美에 ‘중국선풍’ / 재미포도 모녀갈등 형상화 / 「조이력 클럽」 쓴 에이미 뎀방식(국민일보 7월 13일 李太熙 기자)

● 잡지 ‘지방자치시대’ 예고-올들어 10여종 창간...새 문화흐름 이뤄 / 지역문제 · 시사교양 · 노동운동 등 내용 다양 / 대부분 주민후원 의존...채정자립이 과제(한겨레신문 7월 14일 신연숙기자)

● 역대 세금추징...출판계 ‘당혹’-특별세무조사 5개사 예정액 1천만원~1억원 통보(한겨레신문 7월 14일)

● 출판사 직원 36%가 여성-대한출판문화협회 조사. 치밀함 남자보다 앞서(한겨레신문 7월 14일)

● 집에서 컴퓨터로 상품 주문-교보문고 ‘도서구입시스템’ 첫 선(조선일보 7월 14일 金石圭 기자)

● ‘무단번역’ 저작권 논란-日 성인 동화 「우동 한그릇」 국내 출간 / 출판사 “허구 밝혀져 저자 잠적...접촉 못해” / 他社 ‘밀리언셀러’ 군침...중복출판 움직임 / 문공부 “필자 동의없어 불법...고소맨 처벌” (조선

일보 7월 14일 崔球植 기자)

● 등록출판사 4천5백여곳-출협 상반기 통계 2년전보다 2배 증가 / 서울 2만 · 지방은 830종 발행(서울신문 7월 14일)

● 社報 「제3의 언론」 위상정립 / 전국에 1천2백여종...대의 홍보지까지 / 편집권 확보에 기업주 배려 영유권 허구성까지 밝혀(조선일보 7월 14일 姜升遠 기자)

● “납 · 월북작가 저작권 저작자에만”-宋永植 변호사 심포지엄서 주장 / 법적 절차 밟기전 처자 등도 행사할 수 없어(서울경제신문 7월 14일 申正燮 기자)

● 아동물 출판 급증-출협 상반기 도서납본통계 / 발행종수 줄고 부수 늘어 / 신간 감소...인기도서 재출판 치중 / 철학 · 문학류 저조...서울집중 심화(중앙경제신문 7월 14일)

● 출판계 ‘우면파워’-출협 여성인력 현황조사 / 전체 36%...편집파트서 ‘핵심역할’ / 경영자도 35명...장기근무 적어(중앙경제신문 7월 14일 金龍善 기자)

● 원작자 · 각색자 저작권 다툼-소설 「졸병시대」 김신씨 · 연극 ‘졸병수첩’ 김인성씨 / ‘저자의 기본 불인정’이 발단 / 두 영화사가 각각 판권 계약(한겨레신문 7월 15일 안정숙기자)

● 책 발행부수 28% 늘어-대한출판문화협회서 밝혀 / 종류는 오히려 감소 / 출판사 ‘우후죽순’...1년간 1천8백여개나(한국일보 7월 15일)

● 구호 · 외침 떨치고 ‘삶’ 생각케-교수수필집 출간 잇따라 / 柳宗鎬 「함부로 쓴 화살」 등 다수 / 대부분 일상 느낌 잔잔하게 그려(매일경제신문 7월 17일 李奉滿 기자)

● 상반기 출판계 결산-종류 줄고 부수 증가...내실다져 / 아동분야 · 학습참고서 큰 활기 / 인기책 재출간 위주 ‘소극경영’(매일경제신문 7월 17일)

● 출판사는 늘어도 종수는 감소-출협 89년 상반기 출판통계서 밝혀져 / 공급과잉 · 과당경쟁이 주요 원인(중앙일보 7월 17일)

● “학습지 시장쟁탈전 뜨겁다” / 대형출판사 노하우 · 재력 앞세워 공략 / 기존사들 선물공세 등 守城에 ‘안간힘’(중앙일보 7월 17일 李憲益 기자)

● 출판업계 ‘外華內貧’ / 출판사 · 발행부수 늘었지만 새책 줄어 들고 서울집중심화(국민일보 7월 17일)

● 사진복사본 신간 둔갑 대량유통

-화제작 「카미유 플로텔」 영인본 불법출간 시비 / 베끼기는 낡은 수법...표지 · 내용까지 촬영 / 대형서점 버젓이 판매...‘정상유통’ 더 문제(조선일보 7월 18일 崔球植 기자)

● 우리나라 사무직 여성 李文烈 · 柳岸津 작품 애독 / 독서 첫째조건은 “재미” / 책값 한달에 3천~1만원선(중앙경제신문 7월 18일 朴海鉉 기자)

● 전 · 현직 언론인들 출판 붐 / 회고록 · 시사평론서 · 르포집 꾸준 인기 / 「얼굴의 미학」, 「이성과 합성」 등 전문서적도(세계일보 7월 18일 申敏亨 기자)

● 출판사數 급증 속에 책종류 감소 기현상 / 자유화후 등록만 해놓고 책1권도 안낸 곳 수두룩 / 전문화 · 세분화 두드러져...중판늘어 좋은 책 많아진 반증(세계일보 7월 18일)

● 출판계 불황혜 해매-대한출판문화협회 올 상반기 분석 / 발행종수 감소...침체지속 / 출판사 급증따른 과당경쟁이 주원인(내외경제신문 7월 19일 南眞祐 기자)

● 7개 출판사 등록취소 5개 월간지 발행정지-음란 · 퇴폐 조장(경향신문 7월 19일)

● “민족문화전진 1백권 나온다” 친일문학 · 문예지상주의작품 배제(국민일보 7월 19일)

● 필연적 과제이지만 난제 수두룩-출판문화산업단지 심포지엄 / ‘환상계획’...땅 · 재원확보 등 해결문제도 / 복합성 살린 ‘박물관도시’ 형태 바람직(매일경제신문 7월 19일 李奉滿 기자)

● 국내 북한 해외동포작품 총집합 새 민족문화전진집 나온다-동광출판사 3년간 100권 출간 추진 / 김달수, 아니톨리 김, 한설야 포함(스포츠투데이 7월 19일 박찬기자)

● 「한국文集」 93종 20책 간행-민족문화추진회 착수 3년만에 첫 결실 / 丁克仁 · 朴彭年 등 포함...방점 · 목차정리 / 14억예산...98년까지 659종 2백책 완간(조선일보 7월 19일 金泰翼 기자)

● 「한국문집추진」 출간-민족문화추진회 1차분 착수 3년만에 / 총 650여종 200책 중 우선 93종 20책 / 정리체계화...국학연구 획기적 자료(한국경제신문 7월 20일 白昌玄 기자)

● 음란도서 7개 출판사 등록취소 / 월간지 5종 발행정지(조선일보 7월 20일)